

조선전기 ‘무등산권 赤壁’ 공간의 문학작품 연구

김대현*

<차 례>

1. 머리말
2. ‘무등산권 적벽’과 그 문학적 인식
 - 2.1. ‘무등산권 적벽’이라는 이름
 - 2.2. 적벽 공간의 문학적 인식
3. 조선전기 16세기 무등산권 적벽문학 작품
 - 3.1. 漢詩 작품을 통해 본 조선전기 적벽문학
 - 3.2. 散文 작품을 통해 본 조선전기 적벽문학
4. 맺음말

<국문초록>

이 논문은 ‘문학 공간’으로서의 ‘무등산권 적벽문학’을 다루고 있다. ‘적벽’이란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문학 공간을 가리키는 이름이다. 따라서 ‘적벽’은 중국을 비롯하여 한국이나 일본 등에 많이 남아 있다. 전통시대에는 山水가 아름다운 곳에 누정과 원림 등을 건축하면서 특별한 문학 공간을 만들기도 하였다. 그래서 무등산권 적벽 지역이 위치하였던 同福縣에는 많은 누정이 건립되었음을 여러 기록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적벽의 자연 공간을 그린 문학작품과 더불어, 勿染亭 등 그 적벽 지역에 있던 많은 누정들의 문학을 포괄하여 ‘적벽문학’이라고 부를 수 있다.

특히 화순의 ‘무등산권 적벽’은 한국의 대표적인 ‘문학공간으로서의 적벽’이라고 할 수 있다. 이곳에는 누정과 같은 많은 문화적인 유적이 있었고, 셀 수 없는 작품들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한국 적벽문학의 대표적인

* 전남대학교

공간인 전라도 화순의 ‘무등산권 적벽’ 공간에 대한 개괄적 연구의 한 가지이다. 그 내용은 조선 전기의 무등산권 적벽문학으로 한정시켜서 다루고 있다.

조선 전기 신재 최산두 선생은 자연공간의 적벽을 인문공간의 적벽으로 인식하여 나갔다. 그 후로 신재의 한시부터 석천 임억령, 제봉 고경명의 한시 등은 적벽 공간의 아름다움을 잘 그리고 있다. 다른 한편 제봉 고경명의 <遊瑞石錄>이나 학봉 김성일의 <遊赤壁記> 등 산문 작품은 조선 전기 대표적인 적벽 遊記이다. 그러나 일부 작품은 은둔사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대개는 관인들의 문학이었기에, 경관의 아름다움을 주로 그리면서, 유가적인 학문자세 등이 잘 드러나 있기도 하다.

핵심어 : 적벽, 적벽문학, 무등산권 적벽, 물염정, 최산두, 고경명

1. 머리말

이 논문은 ‘문학 공간’으로서의 ‘무등산권 赤壁문학’을 다루고자 한다.¹⁾ 무등산권 적벽문학은 수많은 문학 작품이 남아 있어서, 이 논문에서는 조선전기 적벽문학의 한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²⁾ 조선시대에 문학 작품이 활발하게 창작되었던 곳은 매우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교통로에 있었던 만남과 이별의 공간 등은 늘 문학 작품이 뒤따랐기에, 특별한 문학 공간

-
- 1) ‘문학 공간’이란 어느 지역에서 문학 작품이 특별히 창작되었거나, 혹은 문학 작품 속에 등장하는 특별한 지역 등 ‘문학과 관련된 어느 한 지역의 공간적 현장’을 가리키는 말이다.
 - 2) 최근에 관련 논문이 두어 편 발표되었다. 김재현, 「한중 ‘적벽’공간 이미지와 예술 작품 비교 고찰, -한국 내 ‘적벽’답사를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19』,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10. 그리고 적벽 물염정의 문학활동에 대하여 연구된 논문으로 권수용, 「화순 물염정과 적벽문화」, 『역사학연구 44』, 호남사학회, 2011. 등이 있다.

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공간에 세워지기도 하였지만, 문인들이 유흥과 문예의 공간으로서 사용하기도 하였던 이른바 '樓亭'들도 특별한 문학 공간이다.

이러한 누정과 원림 등의 문학 공간과 함께, 전통시대에는 산수의 명승지에 특별한 문학 공간을 만들기도 하였다. 그 대표적인 공간이 바로 '赤壁'이다. 적벽은 중국을 비롯하여 한국이나 일본 등에 많이 남아 있다. 따라서 건축물로 남겨진 대표적인 문학공간이 '樓亭'이라면, 열린 공간으로서 강변의 명승지라는 문학 공간은 '赤壁'으로 대표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적벽 공간에 세워진 누정들이야말로 문학 작품 창작의 핵심적인 공간이었음은 두말 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무등산권 동북현 지역에는 많은 누정이 건립되었고, 적벽 지역에도 크고 작은 누정들이 수 없이 건립되었음은 여러 기록들에서 확인되어 진다. 거의 70여 개소 안팎의 누정들이 동북현의 관아를 비롯하여 적벽 지구 등에 폭 넓게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³⁾

원래 자연공간의 적벽과 달리 문학 공간으로서의 적벽이란 이름의 고유명사는 중국에서 비롯되었다. 그러한 계기가 중국 송대 문인인 소동파의 <赤壁賦>에서 유래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당시 소동파의 <적벽부>에 등장하는 적벽은 黃州 지역에 위치한 적벽으로, 양자강의 적벽대전 이 일어났던 적벽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 소동파의 <적벽부>는 후대에 많은 영향을 주어서, 적벽이란 문학 공간은 중국의 여러 곳으로, 한국이나 일본으로 확대되어 나갔다. 말하자면 적벽은 중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에 걸쳐서 대표적인 문학 공간의 하나로 널리 인식되고 있었다. 그러한 인문학적인 전통에 의하여, 우리는 단순한 자연 공간 뿐 아니라, 그 적벽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던 문학 공간으로서의 적벽에 큰 의미가 있음을 잘 알고 있다.

한국에도 물론 여러 군데 문학 공간 내지 문화 공간으로서의 적벽이

3) 1915년에 편찬된『同福誌』누정 조에는 약 30여 곳, 1964년 편찬된『同福誌』누정 조에는 2배 이상인 약 70여 곳의 누정 이름이 실려 있다.

남아 있다.⁴⁾ 필자가 파악한 바로도, 이른 시기의 한강 유역의 광진 적벽에서부터 경기도 연천의 한탄강 유역의 적벽, 전라북도 채석강 근처의 적벽강, 경상도 영덕의 적벽, 무등산권 화순 적벽 등이 있다. 그런데 이들 적벽 가운데 강가에 이루어지면서 그 어느 지역보다 규모가 큰 적벽은 무등산권의 화순 적벽이라고 여겨진다. 이뿐 아니라 무등산권 화순의 적벽은 수많은 문학 활동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많은 작품이 생산되었다는 점에서 무척 특별한 곳이다. 따라서 무등산권 적벽은 가장 의미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문학공간으로서의 적벽’이라고 할 수 있다.⁵⁾ 따라서 이에 관한 작품들은 수많은 한시 속에 그리고 여러 산문 속에 남아 있다. 이 글은 한국 적벽문학의 대표적인 공간인 전라도 화순의 무등산권 적벽 공간에 대한 문학적 연구의 하나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 내용을 조선 전기의 무등산권 적벽문학으로 한정시켜서 다루어 보고자 한다.⁶⁾

2. ‘무등산권 적벽’과 그 문학적 인식

2.1. ‘무등산권 적벽’이라는 이름

오늘날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에 주로 소재한 적벽은 그 이름을 ‘화순

4) 한국의 적벽 문학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는 이루어져 있지 않다. 비교적 최근에 관련된 논문이 있는데, 전라남도 화순의 적벽, 전라북도 부안군의 적벽강, 충청남도 금산군의 적벽강 등 세 군데 적벽 공간이 있다고 말하였다. 김재현, 앞의 논문, 15면. 그러나 역사적으로 한국의 적벽 공간은 훨씬 더 많이 남아있다. 또한 한국에서 소동파 <적벽부>의 수용에 대한 연구도 있다. 김주순, 「소동파 <赤壁賦>의 조선 한시에 대한 영향」, 『중국문화연구 16』, 중국문화연구학회, 2010년.

5) 16세기부터 근대 20세기까지 무등산권 적벽관련 작품들이 상당수 현전하고 있다. 20세기에도 <적벽부>의 예에 따라 7월 기말에 詩會를 열었던 모습도 자주 눈에 띈다. 아마 무등산권 적벽 관련 시문은 수 백편은 훨씬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6) 무등산권 적벽 문학 작품의 숫자는 상당히 많아서, 편의상 이를 조선 전기, 조선 후기, 20세기 근대시기라는 세 시기로 나누어서 고찰하려고 한다.

적벽’으로 부르고 있다. 1979년에 전라남도 기념물 60호로 등록되면서 붙인 이름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는 이를 여러 가지로 부를 수 있다. 첫째로 ‘同福 적벽’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예전의 여러 기록에는 적벽은 동북에 있다거나 동북 적벽이라고 지칭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⁷⁾ 조선 시대에는 적벽이 ‘동북현’이라는 행정구역에 속하였기 때문이다.⁸⁾ 다음으로는 ‘和順 적벽’으로 부르는 경우이다. 이제 동북면은 화순군의 일부가 되었기에 물론 ‘화순 적벽’이라고 부르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이름은 현재 앞서 말한 바처럼 전라남도 기념물의 이름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더 넓은 공간을 가리켜서 ‘무등산권 적벽’으로도 부를 수 있다. 이처럼 적벽이 위치한 공간은 현재 여러 가지로 부를 수 있다. 그런데 필자는 적벽이란 가장 넓은 공간인 무등산권의 한 유람 공간이었으므로, ‘무등산권 적벽’이라고 넓은 의미로 부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무등산권 적벽’이라는 말을 주로 사용하고자 한다.

최근에 무등산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는데,⁹⁾ 이러한 무등산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한 무등산권의 인문학적 연구를 하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재로는 무등산의 자연유산으로의 연구에 치중하여,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지니고 있던 수많은 인문학적 자산들을 놓치고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면에서도 화순 지역의 적벽 공간을 무등산권 문화 공간의 하나로 파악하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오늘날 무등산권 적벽은 상류로부터 살펴보면 ‘물염적벽’, ‘창랑적벽’,

7) 1896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동북현은 동북군이 된다. 그러다가 1914년 봄에 동북군이 화순군에 편입되었다. 이에 1914년 편찬에 착수하여, 1915년에 목활자본으로 2권 1책의『동북지』를 간행하였다.

8) 『여지도서』 동북현 조에는 ‘관아의 서쪽 10리 용성산 서쪽 기슭에 있다. 강가에 절벽이 서 있는데, 돌의 색깔이 모두 붉다.’고 하였다. 변주승 역주, 『여지도서 45』, 전라도 2, 전주대학교 고전국역총서1, 45면

9) 無等山은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화순군과 담양군에 걸쳐 있는 해발 1,187m의 산이다. 1972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2012년 12월 27일에, 21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장항적벽’, ‘보산적벽’ 등 네 군데의 적벽이 있다. 그런데 오늘날의 경관은 옛날의 모습과 판이하게 다른 모습이 되었다. 그 옛날 실 같은 무등산 골짜기의 물이 원류가 되어 흘러, 여러 골의 물과 합하여 흐르던 적벽강의 물이 지금은 수심이 수십 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호수로 변해버렸기 때문이다.¹⁰⁾ 그 호수에는 댐이 만들어져 있는데, 호수의 대부분은 이서면이지만 댐의 위치가 동북면에 자리 잡고 있어서 동북댐이라고 불리고 있다고들 말한다.¹¹⁾ 그러나 지금 동북면에 있다는 말도 되지만, 옛날부터 적벽은 동북현에 속하였으므로 동북댐이라는 이름이 역사적으로 자연스럽게 불리게 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무등산권 적벽, 지리적으로 화순 지역, 무등산의 물줄기가 동쪽으로 흘러가는 화순 達川의 한 편을 ‘赤壁’이라 이름 붙인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신재 崔山斗(1483-1536)라고 알려져 있다.¹²⁾ 신재 선생은 1513년 문과에 급제하여 의정부 사인으로 있다가, 1519년 기묘사화를 당하게 된다. 그래서 그해 12월 전라도 동북현으로 귀양을 오게 되었다. 신재 선생은 유배 15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되었으나, 돌아가지 않고 적거지에서 지내다가 3년 후인 1536년 53세를 일기로 눈을 감았다.¹³⁾

신재는 스스로 나복산인(蘿菴山人)이라고 불렀다. 이 나복산은 화순의

10) 적벽 부근의 지명은 여러 이명들이 있었다. 지금은 적벽강이라고 부르는 곳이『여지승람』에는 물염연, 창랑연 등으로 기록되기도 한다. 하류에는 ‘달천’이란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지금 동북댐 부근에 그 이름이 남아있다.

11) 필자는 최근 화순 적벽에 관한 이 논문을 쓰고자, 광주광역시의 허가를 받아서 적벽에 들어가 두 번째 답사를 할 수 있었다. 적벽은 그 중앙에 실향민의 아픔과 애환을 달래주는 망향정 등이 세워져 있어서 오늘날 적벽 지역의 사회적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지만 그 마을의 실향민들은 대개 적벽 공간에서 문학 활동을 하던 훌륭한 선조들의 후손들이다. 이제는 좀 더 역사적인 공간으로서의 ‘적벽’ 연구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여겨진다.

12) 이러한 기록은『여지도서』에 실려 있다. ‘석벽(石壁)이라고 불려오던 것을 최산두가 지금의 이름인 적벽으로 바꾸었다.’ 앞의 책, 45면.

13) 한편 선생이 돌아가신 후인 1578년 현 광양읍 우산리에 ‘봉양사’가 세워져 그의 위패를 모셨으며 그 후 동북면 연월리에도 ‘도원서원’이 세워졌다. ‘도원서원’에는 신재 최산두를 비롯하여 석천 임억령, 한강 정구, 우산 안방준 등이 모셔져 있다. 묘소는 광양의 봉강면 부저리에 있다.

진산인 母后山을 가리키는 말이다. 또한 나복(蘿菴)이란 용성(甕城) 구성(龜城) 등과 함께 동복(同福)의 이칭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그만큼 신재는 동복의 산수 자연에 마음을 붙이며 생을 마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신재는 '적벽'이라고 명명하고, 그 아름다운 경치를 유람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사실 '적벽'이란 앞서 말하였듯이 동아시아의 여러 곳에 존재하는 지역의 명칭이기에, 고유명사로 적벽이란 이름을 붙였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일이 아닌가 한다. 우리나라에 여러 적벽이 있음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신재는 무등산권의 적벽 공간을 새롭게 발견하였으며, 적벽의 자연공간에 대하여 문학적인 인식을 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2.2. 赤壁 공간의 문학적 인식

말하자면 더욱 중요한 점은 이러한 '자연공간으로서의 적벽'을 신재가 '인문공간으로서의 적벽'으로 인식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전하는 문학작품을 통하여 그 공간의 문학적 인식과 그 내용이 어떠한가를 살펴보는 일이 중요하다. 이러한 적벽의 문학공간화를 알려주는 중요한 기록 가운데 한 가지가, 16세기 제봉 고경명의 <遊瑞石錄>이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제봉 선생은 1574년 음력 4월에 무등산을 5일간 유람한 후에 기행문을 남긴다. 여기서 보는 바처럼 적벽은 <유서석록>에 제시된 무등산 기행공간의 일부로 여겨지고 있었으므로, 적벽이란 무등산권의 이름으로 포함될 이유도 된다. 이 <유서석록>에 바로 적벽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일부가 다음처럼 되어 있다. 이 글은 여러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데, 편의상 세 대목으로 나누어서 그 의미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다.

- 1) 장원(長源)이 한 번 자취를 끊은 후에 뒤를 이은자가 없으니, 풍류와 회포를 알아 줄 이가 없게 된 지 거의 수백 년이 되었다.¹⁴⁾

먼저 長源이란 인물이 한 번 자취를 끊은 후에 이은자가 없었다고 하였다. 이 말은 중요한 내용으로, 제봉은 적벽을 유람하고 적벽에 자취를 남긴 최초의 인물은 ‘장원’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장원은 이름이 김도(金濤)로 호는 나복산인(羅菴山人)이며 고려 말 공민왕 때의 사람이다.¹⁵⁾ 여기의 기록에 의한다면 적벽 공간에 대하여 처음으로 자연 공간에 대한 풍류적 인식을 한 사람으로는 고려 말의 김도로부터 시작된다고 하였다. 김도가 호를 나복산인이라고 한 것은 화순 동북에 은거하였기 때문인 것 같다. 동북의 별칭이 나복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복산은 자연스럽게 동북의 진산이었던 지금의 모후산을 가리키는 옛 이름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 글에서 적벽을 특별한 자연공간으로 인식하는 것은 여말선초에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2) 그러다 사인(舍人) 최신재(崔新齋)가 중종 때 기묘사화에 연루되어 이 고을로 유배되었는데, 하루는 손님과 동반하여 달천(達川)에서부터 물의 원류를 더듬어 이 명승을 찾게 되었다.¹⁶⁾

여말 선초 이후 수백 년이 지나서 사인 최산두가 기묘사화에 연루되어 이 고을에 유배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신재는 의정부 사인의 벼슬에 있다가 1519년 12월 동북현으로 귀양을 오게 된다. 그가 손님과 함께 이 명승을 찾게 되었다고 하였는데, 그때 적벽을 함께 찾은 손님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신재는 1519년에 동북으로 귀양을 와서 1536년에 운명하게 된다. 그

14) 이하 <유서석록>의 번역문은 다음 책을 참고한다. 김대현 외 역주, 『국역 무등산 유산기』 광주시립민속박물관, 2010년. 50면. 원문은 長源一折, 繼者無人, 賞音寥寥, 將數百年.

15) 『여지도서』에 비교적 자세하게 실려 있다. 『여지도서』, 앞의 책 52면. 본관은 연안 김씨로, 공민왕 때 관직에 나아갔다가, 우왕 때에는 이색이 탄핵을 받는 등, 어려운 때를 맞이하여 벼슬을 버리고 나복산 아래로 거처를 옮겨 살았다고 한다.

16) 『국역 무등산 유산기』, 앞의 책 65면. ‘新齋崔舍人(山斗), 罹己卯之禍, 編管此縣, 一日拉客, 自達川窮源而得之’

러면 약 18년간 동북에 살았던 셈이고, 그 동안에 동북현 관아에서 약 10리 길인 적벽을 여러 번 유람하였으리라 여겨진다. 그 해가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시기적으로 1520년대에는 신재가 여러 문인들과 적벽을 찾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신재는 그때 1520년대부터는 적벽을 문학 공간으로 바꾸어 나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新齋先生文集』에는 작품이 충분하지 않아서 그 흔적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다. 다만 적벽 관련 작품으로는 <題勿染亭> 시구만 일부 남아있다. 만약 문집에 실린 이 기록이 맞으면, 현재까지 살펴본 바로는 적벽 관련 최초의 문학 작품은 운명하던 때인 1536년 이전 어느 시점에 지어진 <제물염정> 시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¹⁷⁾

3) 이에 남방 사람들이 비로소 적벽을 알게 되어 시인 목객의 노는 자취가 잇달게 되었으니 임석천(林石川)이 명(銘)을 짓고 김하서(金河西)가 시를 지어 드디어 남국의 명승지가 되었다.¹⁸⁾

신재의 유람에 따라 비로소 남방 사람들이 적벽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그 동안 오랫동안 잊고 있던 적벽을 신재가 다시 유람의 장소로 문학 창작의 공간으로 만들어 간 것이다. 그러한 문학 창작의 예로 임석천이 명을 짓고, 김하서가 시를 지어서 남국의 명승지가 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석천 임억령의 명(銘)은 남아있지 않다. 다만 하서 김인후의 적벽 관련 시는 남아서, 그 무렵 유람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그 시기가 언제인지 분명하지는 않다. 다만 하서는 1527년 무렵에 신재에게 찾아가서 제자 되기를 청하고, 굴원의 초사도 배웠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그

17) 이는 물염정의 건립과정을 밝히는 점에서도 중요한데, 물염정의 건립자에 여러 이설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재의 작품이 맞으면, 물염정의 최초 건립 과정을 시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건립자는 송구(宋駒, 1483?-1550?)설이 더욱 가깝다고 여겨진다. 또한 동북현감을 지낸 이가 송구였기에, 그럴 개연성이 더욱 높다는 의견도 있다. 권수용, 앞의 논문, 136면.

18) 『국역 무등산 유산기』, 앞의 책 66면. ‘於是, 南人始知有赤壁, 而騷人墨客, 遊躅相踵, 林石川銘之, 金河西詩之, 遂爲南國名區.’

렇다면 그 무렵에 아마 하셔도 적벽을 유람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여러 가지 사실을 알려주는 제봉 고경명의 <유서석록>은 1574년 작이지만, 약 50년 전인 1520년대 신재 최산두와 관련된 적벽의 기사를 기록으로 남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봉의 이 <유서석록>은 무등산권 적벽 공간이 문학공간으로 변해가는 당시의 모습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3. 조선전기 16세기 무등산권 적벽 문학 작품

위에서 말한 바처럼, 무등산권의 적벽은 조선전기 16세기에 들어서 자연공간에서 문학공간으로 더해지고 있었다. 따라서 조선전기의 적벽 문학 작품이란 임란 이전의 바로 16세기 문학 작품을 가리키는 말이다. 화순 적벽에 대하여 남아있는 최초의 시 작품은 위에서 말하였듯이, 『신재선생문집』의 기록이 맞으면, 신재 최산두의 <제물염정> 시 일 것이다.¹⁹⁾ 그 무렵 신재는 문장으로 이름이 높아서 호남 삼걸로 불리웠고, 놀재 박상, 석천 임억령 등 이름난 호남의 문인들과 교유하게 되었다. 아마도 그 무렵 석천 임억령의 적벽 관련 작품들도 창작되었으리라 보인다. 그 뒤에는 제봉 고경명 등 여러 호남 문인들의 한시가 뒤따랐다. 산문으로는 앞에서 거론한 1574년에 지은 제봉의 <유서석록>에 적벽 관련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다음으로 적벽 공간에 매우 중요한 산문 작품인 학봉 김성일의 <유적벽기>도 1586년에 이루어진다. 이들 조선 전기 적벽 문학작품을 한시와 산문으로 나누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한

19) 이 물염정은 원운시의 문제로도 여러 이설이 있다. 현재 송구라는 설, 송정순이라는 설, 나무송이라는 설 등이 있다. 그러나 이 원운시의 차운시들이 조선 후기에 나오는 것으로 미루어 나무송의 손자 대인 18세기에나 원운시가 창작되었으리라는 의견도 있다. 권수용, 앞의 논문, 156면.

다.

3.1. 漢詩 작품을 통해 본 조선전기 적벽문학

화순 적벽 관련 한시 작품은 가장 최초의 작품은 무언인가?²⁰⁾ 이에 대답하는 것은 자료의 부족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 현재까지 맨 처음의 작품은 앞서 말하였던 신재 최산두의 <題勿染亭> 시이다. 네 군데 적벽 가운데 하나인 물염적벽이 있고, 그 적벽을 바라보면서 물염정이 있었다. 신재는 1519년부터 1536년 운명할 때까지 동북에 있었으므로, 그 어느 시점엔가 지어진 작품일 것이다.²¹⁾ 실전되고 남은 그의 <제물염정> 시구이다.

江含白玉窺魚鷺 고기 엿보는 백로는 강이 백옥을 품은 듯 하고
山吐黃金進蝶鷺 나비 쫓는 피꼬리는 산이 황금을 토하는 것 같네
(나머지는 실전)

적벽 공간의 맨 처음 시로 여겨지는 이 시구에서 백로는 백옥에 비유하고 피꼬리를 황금에 비유하는 등 매우 아름다운 비유와 시각적인 표현이 돋보인다.²²⁾ 물고기를 잡으려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백로와 나비를 쫓아 산에서 나오는 피꼬리를 품은 듯 하고, 토하는 것 같다는 말로 나타내는 것도 멋진 표현이다. 그렇지만 이 시는 하서가 편찬한『백련초해』의 시풍과도 유사하여, 좀더 면밀한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추측컨대 신재는 적

20) 물론 동북 전체로는 응취루(凝翠樓)가 1474년 성종5년에 건립되었고, 김종직 등의 시가 남아있어서, 매우 이른 시기의 작품이 많다. 여기서는 적벽 공간에 한하여, 이 물염정 관련 시가 가장 이른 것으로 남아있다는 뜻이다.

21) 물염정의 건립은 이설이 있지만, 송정순의 부친이었던 宋驪(1483?-1550?)가 동북현감 재직 시 이루어졌다는 쪽이 유력하게 여겨지고 있다. 권수용, 앞의 글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135면.

22) 강물이 마치 백옥 같다거나, 산이 단풍이 들어 황금 같다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 백로가 백옥 같고, 피꼬리가 황금 같다는 쪽이 훨씬 더 어울리는 뜻이다.

벽 관련 작품이 상당수 있었을 것인데, 현재 남아서 문집에 전하는 작품들이 거의 없다. 그렇다면 신재의 적벽 문학 이후의 상황은 어떠할까? 현재는 그 무렵에 신재와 자주 교류하였던 석천 임억령의 적벽 작품들이 있다.

앞서 말하였듯이 제봉의 <유서석록>에는 적벽에 ‘석천의 명’과 ‘하서의 시’가 지어져서, 적벽이 남국의 명승지가 되었다고 하였다. 그런데 현재까지 이들 작품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석천의 명(銘)’이란 작품은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고 있고, ‘하서의 시(詩)’도 지방지에 실린 물염정 적벽에 대한 시가 남아 있다. 석천 임억령의 적벽 시는 應製 시로 지어진 古風 한시가 남아있다. 그런데 이 시도 어느 때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지는 않다.

赤壁 적벽

良馬得伯樂	좋은 말이 백락을 만나서
一顧增高價	한번 돌아보면 값이 더 높아진다
我嘗評江山	내가 일찍이 강산을 평하기를
逢時亦類馬	때를 만나는 것이 또한 말과 같다네
此地開闢有	이 땅이 개벽한 이래로
千秋瘴煙鎖	천추토록 장연에 잠겨 있었네
勃興得二雄	갑자기 두 영웅을 만나고 보니
天地爭其下 ²³⁾	천지도 그 아래를 다투다네

(하략)

이 시는 26구의 오언장편 시이다. 시의 내용으로 보아 중국의 적벽을 읊고 있어서, 두 영웅은 바로 조조와 소식을 만나서 그 적벽의 모습이 세상에 알려졌다고 하였다. 여기까지에서도 화순의 적벽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석천의 화순 적벽은 문학 공간으로서의 ‘적벽’이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이미 신재가 적벽강의 바위들에 대하여 ‘적벽’

23) 『石川詩集』 卷之一 <赤壁>

이라는 말을 붙였다고 하는데, 현재 석천의 시 가운데는 무등산권 화순 '적벽'이란 이름을 구체적으로 남기고 있지 않는 것 같다.

그러나 적벽을 대상으로 읊은 시로 석천의 시 <瀨川石灘 달천의 돌 여울>이란 시를 주목할 만하다. 맑고 상쾌하여 들을 만하여 고체시로 최경양 선생에게 바치다. (蕭爽可聽, 以古詩呈崔景仰先生)라고 부기되어 있다. 바로 이 시는 달천 즉 지금의 적벽의 돌 여울에 대한 시이다.²⁴⁾ 이 시는 적벽문학 관련하여 완전한 한시로 기록되어 남아있는 첫 작품으로 추정된다.

林子將釋奠	임자가 석전을 지내려고
中秋學舍宿	중추에 학사에서 묵었다
缺月可庭院	조각달이 정원에 비치는데
枿坐南床獨	좌선하는 것처럼 홀로 의자에 앉았네
有聲中夜來	밤중에 소리가 들려오는데
颯然膚起粟	갑자기 피부에 소름이 돋네
(중략)	
朝起遠望之	아침에 일어나 멀리 바라보니
下有澄江滌	아래로 맑은 강이 흐르고 있었다
源于無等山	무등산에서 근원이 되어
百里至同福	백리를 흘러 동복에 이르네
(중략)	
六年對此灘	육년 동안 이 여울을 대하였으니
於良亦云足	장량이라도 또한 족하다고 말하겠지
雖云十室監	비록 십실의 현감이라지만
不換九州牧	구주의 수령과도 바꾸지 않고 싶다

석천 임억령은 1533년에 동복현감으로 부임한다. 그러다가 1538년인 6년 후에 홍문관 부교리가 되어 내직으로 들어간다. 시구 가운데 南床은 御使를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일반적으로 관리를 의미한다. 아마 석천 자

24) 제봉의 <유서석록>에는 달천(達川)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 시에는 달천(瀨川)으로 되어 있다.

신을 뜻하는 말이 아닐까 하는데, 다음의 6년간 여울을 대하였다는 것은 6년 째 동복현감을 한다는 말이다. 張良은 한나라의 개국공신인데, 열후의 지위에 올랐지만 인간 세상의 일을 버리고 적송자를 따라서 노닐고 싶다고 하였다. 석천도 벼슬을 그만두고 자연 속으로 들어가고 싶음을 비유적으로 말함이다. 그러니 이 시는 1538년 무렵 어느 때인가 창작되어진 것으로 보인다. 시에서 적벽이라고 일컬은 것은 아니지만, 달천의 석탄이란 바로 적벽을 두고 이룬 말이다.

석천은 신재와 많은 교유가 있었다. 특히 1519년에 동복으로 귀양 온 신재를 이어, 거의 15년 후인 1533년에 동복현감이 되어 온 석천은 신재가 운명할 때까지 삼사년 동안 많은 교유를 하였음은, 석천의 문집에서 여러 작품을 주고받은 것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당연히 석천과 신재는 함께 어울리며 화순 적벽을 유람하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제봉이 <유서석록>에서 언급한 ‘하서의 시’는 어떠한가? 제봉의 앞선 <유서석록>에 의하면, 하서 또한 화순 적벽 시를 남겨서, 그 때 문에 화순 적벽이 남국의 명승지가 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현재『하서전집』에는 화순 적벽에 대한 시가 구체적으로 남아있지 않다. 적벽 관련 시가 두어 수 있지만, 먼저 소동파의 <적벽부>에 대한 시가 눈에 띈다.

讀東坡赤壁賦 소동파의 <적벽부>를 읽으며

滄波萬頃秋色早	만경창파에 가을이 일찍 드니
淨洗玉宇無纖塵	맑게 씻은 저 하늘엔 먼지 하나 없구나
水輪輾上桂花明	밝은 달이 솟아나자 계수나무 꽃도 밝아
影落九地窮崖濱 ²⁵⁾	그림자 땅에 떨어져 물가 언덕에 비치네

(이하 생략)

이 시는 40구의 7언 장편 시로, 동파의 <적벽부>를 읽으면서 그 흥을 빌어 읊은 시이다. 시구의 사이사이 <적벽부>의 시구와 연상되는 대목이

25)『河西全集』卷之三

많다. 하서가 화순 적벽에 대한 시를 남겼다는 제봉의 기록이 있는데, 아직까지 문집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것도 아쉬운 일이다. 문집에는 하서가 화순 적벽을 유람하였는지에 대한 언급도 자세하지 않다. 다만 하서는 적벽을 유람하였을 것으로 추측되는 시구들이 남아있어서, 그 편린만을 알 수 있을 따름이다. 하서의 한시 <詠李上舍鶴 四美亭>의 한 구절인 '翻思赤壁遊 언뜻 적벽의 유람이 생각나니 / 宛爾同襟期 웃으면서 마음속으로 기약하네'²⁶⁾가 있다. 이에 의하면 적벽의 유람을 기약하고 있는데, 이때 적벽은 물론 동북 적벽을 말하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그렇지만 하서의 문집『하서전집』에는 실려 있지 않지만, 물염정 시에 하서의 작품이 남아 있어서 주목된다. 이 시는 <물염정> 시인데, 또한 <百年賓(백년빈)>이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다.

大醉鳴陽酒 명양의 술에 크게 취하여
 歸來三月春 삼월 봄에 돌아 와보니
 江山千古主 강산은 천년의 주인이요
 人物百年賓²⁷⁾ 사람은 백년의 손님이네

명양은 흔히 창평을 가리키는 말이므로, 아마도 하서가 소쇄원에서 머물다가 이곳 적벽으로 넘어 온 것이 아닐까 여겨진다. 만약 이러한 사실이 맞는다면, 제봉이 <유서석록>에서 말한 하서의 시란 바로 이 시를 두고 한 말이 아닐까 여겨진다.

호남의 문인들은 대개 적벽 유람을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보다 화순 적벽에 대한 시를 구체적으로 남긴 이는 제봉 고경명(1533-1592)이라고 여겨진다. 그는 1574년에 무등산을 유람하고 <유서석록>을 창작하였던 바, 그 무렵 창작되어진 무등산권 적벽 관련 시가 여

26) 하서의 한시 <詠李上舍鶴 四美亭>의 한 구절이다. 李鶴은 전주이씨 양도공파의 인물로 호는 雙梅軒이다. 석천, 하서 등과 교류하였으며, 어초은 윤희정의 사위가 된다.

27) 현재 물염정에 현판으로 되어 있고, 1915년 간행된『동북지』에 실려 있다.

러 수 남아있다.

赤壁 次葛川先生韻 적벽, 갈천 선생의 운을 따라

鐵壁瓌姿兩絕奇 깎아지른 절벽 옥 같은 모습 모두 기이하여
 蒼然鬚髮鑑淪漪 푸른 머리털은 물결 위에 비치네
 江山已足添詩興 강산은 이미 시흥을 더하기에 족한데
 更被先生鼓舞之²⁸⁾ 다시 선생의 시는 더욱 더 북돋우네

이 시는 제봉이 1574년 무등산을 유람할 당시에, 갈천 임훈 선생의 운을 따라 지은 시이다. 깎아지른 절벽이 있고, 그 위에 난 소나무를 기발하게도 푸른 머리털로 비유하였던 것이다. 이는 갈천 선생의 모습을 비유하기도 한 듯하여, 중의적인 표현이라고도 보인다.

遊赤壁 次剛叔韻 적벽에 노닐며, 강숙의 운을 따라

人物蘇仙兩 인물은 소선이 둘인 듯
 江山赤壁雙 강산은 적벽과 쌍인 듯
 參差吹欲徹 통소 불기를 다 하니
 孤鶴定橫江²⁹⁾ 한 마리 학은 강을 가로 지르네

이 시도 당시 1574년에 적벽을 유람할 당시 서하당 김성원의 시에 대하여 차운한 것이다. 서하당을 소선, 즉 소동파에 빗대어 말하고 화순 적벽을 동파의 적벽과 나란하다는 말을 한 것이다. 통소를 불면 학이 날아간다는 시구에서도 음악과 그림 같은 강의 모습이 잘 어울리고 있다. 시각과 청각의 이미지가 교차하는 아름다운 시이다.

寄意赤壁 次太白韻 적벽에 뜻을 부치다, 태백의 운을 따라

28) 이하 제봉 고경명의 시는 『국역 제봉전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4년 재간행 본을 참조하였다. 상권 289면. <赤壁>

29) 『국역 제봉전서 중』<遊赤壁> 앞의 책, 72면.

問此赤壁水	물노니 적벽의 물이여
何如武昌縣	무창현과 어떻게 다른가
惜哉在遐荒	아쉬워라 멀고멀어서
不令東坡見	동파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다니
新齋能具眼	신재가 능히 눈이 있어서
奧境開生面	깊숙한 경치를 보게 하였고
石川飛鳥鳧	석천은 물오리처럼 날아서
澄江吟謝練 ³⁰⁾	맑은 강위에 사련을 읊었구나

(하략)

제봉 고경명의 화순 적벽 관련 시는 16세기 무등산권 적벽 시의 주요한 작품들이라고 여겨진다. 제봉의 시를 통하여도 당시 호남의 문인들 사이에는 적벽을 유람하는 것이 자주 이루어졌던 것 같다. 이 시에서도 신재의 적벽 발견, 석천의 시사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다. 제봉의 시 가운데, 고봉 기대승이 적벽에 놀러간다는 말을 듣고 시를 부쳐서 축하해주는 내용이 있다. <聞奇高峯 遊赤壁 寄詩賀之 / 기고봉이 적벽에 놀러간다는 말을 듣고 시를 부쳐서 축하하며>라는 시이다.

寒水石稜生	차가운 강물에 바위가 드러나고
半邊山雨響	한 쪽 강변엔 산비 소리 울리네
預知子當歸	그대 돌아올 줄 미리 알고서
淸風藤獨杖 ³¹⁾	청풍 속에 등나무 넝쿨 지팡이 만들었네

1570년 경오년에 기고봉이 적벽에 놀러 간다는 말을 듣고서 시를 부쳐서 축하한다고 되어 있다. 제봉이 38세 때의 일이다. 당시 제봉은 확실하지는 않지만 서울에 있었던 것 같다. 이러한 시를 통하여도 이미 1570년 대에도 여러 유람객들은 적벽을 유람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그러나 적벽에 관련된 고봉의 시는 실전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위

30) 『국역 제봉전서 중』 <寄意赤壁> 앞의 책 87면.

31) 이 시는 <제봉연보>에 실린 시이다. 『국역 제봉전서 중권』, 앞의 책, 102면.

의 시를 살펴보면 전반부에는 적벽의 모습을 읊고 있다. 후반부는 적벽을 의인화하여, 고봉이 돌아올 것을 알고 등나무 넝쿨로 의지하는 지팡이를 만들어 두었다는 표현을 하였는데, 무척 아름다운 시구이다. 1574년에 지은 <유서석록>에서도, 무등산권의 여러 곳을 가지 않은 곳이 없었다고 하였으니, 제봉은 일찍부터 적벽을 유람하였으며 자연 경관 또한 소상하게 잘 알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제봉은 여러 편의 적벽 문학 한시를 남겼는데, <喚鶴堂> 시도 적벽강 위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또한 <滄浪六詠>이라는 시 여섯 수는 적벽 공간의 모습을 매우 아름답게 그린 시이다.³²⁾ 당시 16세기 적벽은 勿染亭, 喚鶴堂 등이 있어서 누정문학의 근거지가 되었을 것이다. 또한 滄浪亭이라는 창랑 정암수(丁巖壽, 1534-1594)의 누정도 있었다. 창랑은 기축옥사를 당하여 세상에 뜻을 잃고 이곳 적벽의 자연에 의탁하였다고 하였다. 여기서도 많은 시 작품이 창작되었으리라 여겨진다.

이처럼 16세기 호남 문인들은 많은 적벽 관련 시들을 남기고 있다. 그 가운데서 제봉 고경명의 적벽관련 시는 약 10여수나 되어서, 조선 전기 적벽 한시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이들 문인들의 적벽 관련 시 외에도, 학봉 김성일, 설월당 김부륜, 오음 윤두수, 청계 양대박, 현곡 조위한 등 많은 문인들이 16세기에 무등산권 적벽을 문학공간으로 삼아 시를 남기고 있다.

3.2. 散文 작품을 통해 본 조선전기 적벽 문학

현재 무등산권 적벽에 관련된 遊記 작품은 조선후기 송병선의 <遊赤壁記>에 이르기까지 여러 편 남아 있다. 여기서는 조선 전기의 화순 적벽

32) 『국역 제봉전서 상권』, 앞의 책, 298-299면. <滄浪六詠- 창랑의 여섯 가지 경치>은 赤壁晨霞 적벽의 새벽안개, 蒼楠暮煙 창남의 저문 연기, 夢橋釣雪 몽교의 겨울 낚시, 滄浪泛月 창랑에 뜬 달, 圭峯落照 규봉의 낙조, 甕城秋色 웅성의 가을빛을 가리킨다.

관련 산문 작품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무엇보다 제봉 고경명의 적벽 유람 내용을 다룬 <유서석록>을 먼저 들 수 있다. 이 작품은 무등산권의 세 영역인 무등산, 그리고 적벽 지역, 다시 소쇄원 지역 등 무등산권의 세 영역을 모두 잘 다루고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많은 매우 중요한 작품이다. 여기에 실린 <유서석록> 가운데 적벽 관련 부분을 크게 세군데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³³⁾

1) 적벽에 도착하여 자연 경관을 그리고 있다.

2) 적벽의 인문 문화 공간을 다룬 부분을 다루고 있다. 통소를 불게 한다거나, 이리 호랑이 등이 우글거리고 있고, 산골 늙은이가 그 사이에서 살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신재 최산두, 석천 임억령, 하서 김인후 선생의 작품으로 남국의 명승지가 되었다는 말을 하였다. 중국의 무창 적벽도 소동파를 만나서 그렇게 되었다는 말을 하고 있다.

3) 오봉사와 창랑과 무염(無鹽) 공간의 기록을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인근에 있는 창랑(滄浪)의 유정(柳亭)과 무염(無鹽)의 석탄(石灘)을 관상하지 못했으니 참으로 이번 유람 길의 한 가지 아쉬움이었다.³⁴⁾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 의하면 먼저 자연공간으로서의 적벽, 다음에 인문공간으로서의 적벽 문화를 다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주변의 공간을 함께 다루면서 결말을 맺고 있다. 이 <유서석록>에 의하여 당시 16세기 후반의 무등산권 적벽 모습을 잘 살필 수 있게 된 것은 무척 다행스런 일이다. 제봉은 앞에서 들었던 많은 한시를 비롯하여, 이처럼 <유서석록>의 한 부분에 적벽 유람을 포함시킴으로서 무등산 문화권의 일부분으로서의 적벽을 확실하게 자리잡게 하였다고 생각한다.

33) 이하 번역문은 위에서 말한 김대현 외역, 『국역 무등산유산기』, 광주민속박물관, 2010년의 번역본에 실린 <유서석록>의 내용이다.

34) 유정(柳亭)은 진사 정암수(丁嘉壽)의 별장이고 석탄(石灘)은 현감 송정순(宋庭筍)이 이곳에 서재를 세웠다고 하였다. 정암수의 누정을 유정이라고 부르고 있어서 주목되고, 특히 물염정에 대하여 지금은 물염(勿染)이라고 하지만, 당시에는 무염(無鹽)이라고도 하지 않았나 여겨진다. 아울러 물염정과 관련하여 송정순이 이곳에 정자를 세웠다는 기록이 주목된다.

조선 전기에는 또한 학봉 김성일의 <遊赤壁記>가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작품으로 남아있다. 화순 적벽에 대한 독립적인 산문 작품이자, 16세기 후반의 화순 적벽의 모습을 잘 알려주고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이 작품은 제봉의 <유서석록>보다 12년 후인 1586년에 기록된 내용이다. 이제 이 작품 <유적벽기>를 몇 군데 의미 단락으로 나누어서 순서대로 살펴보기로 하겠다.³⁵⁾

1) 유람의 동기를 서술하다

‘동복(同福)은 호남(湖南)에서 풍광이 아름다운 곳으로 손꼽히는데, 기이하면서도 아주 뛰어나 온 경내에서 으뜸가는 명승지로는 적벽(赤壁)이 있을 뿐이다.’ 라고 시작하고 있다. 이미 벌써 적벽이 유명한 명승지로 알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유람의 동기를 서술하고 있는데, 거의 모든 유기의 서두 부분은 그 유람의 동기를 적으면서부터 시작한다. 학봉은 1583년에 나주목사로 부임 받아, 공무에 쫓긴 여가에 적벽 유람을 하지 못하였음을 아쉬워하고 있다. 여기서 <北山移文>을 받은 것처럼 부끄러워하였다고 하였다.³⁶⁾ 이 <북산이문>은 퇴계 이황(李滉, 1501~1570) 선생도 즐겨 읽었던 듯, 임자년(1552) 중앙절에 창작한 <유청량산록>에도 언급되어 있다.³⁷⁾ 벼슬살이에 지친 자신의 모습이 지방관리로 바쁘게 살아가는 자신은 북산이문의 주옹처럼 북산에도 못 오르게 되었다는 것이 부끄럽기도 하다는 뜻이다.

35) 이하 <유적벽기> 번역문은 『학봉전집』 번역문을 참고하였다. 한국고전번역원 홈페이지 상에 한국고전종합 DB 고전번역서의 『鶴峰全集』내에 鶴峰續集 제 5권 참조.

36) 이는 중국 남북조 때의 문인으로, 뛰어난 문장가로 유명했던 공치규(孔稚圭)의 작품이다. 이 글 북산이문은 벼슬에 쫓아가는 속된 선비인 주옹이 북산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37) ‘조용한 가운데 경전을 궁구하여 깊이 깨닫지는 못하였지만 가볍게 세속을 벗어나 부지런히 왕래하는 동안 심경지沈慶之, 공치규孔稚圭 등은 곁에서 조용히 웃으면서 기롱하였다.’ 이황, <유청량산록> 부분.

이어 동북 현감 설월당 김부륵의 초청을 받고 채비를 하고 유람을 떠나는 모습을 다루고 있다. 16세기 무렵 적벽과 관련하여 많은 영남의 문인들이 유람을 하며 시를 남기고 있다. 그 문인들은 먼저 광주목사를 하였던 갈천 임훈(1500-1584), 동북현감을 하였던 설월당 김부륵(1531-1598), 나주목사를 하였던 학봉 김성일(1538-1593), 동북현감을 하였던 한강 정구(1543-1620) 선생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모두 경상도의 문인이면서, 화순 동북 등에 관련된 많은 문학 작품을 남기고 있다. 이 가운데 이 학봉의 <유적벽기>는 중요한 기문으로 평가할 수 있다. 여기에서 설월당 김부륵이 1585년에 동북 현감으로 부임하여, 이듬해 당시 나주 목사로 있었던 학봉을 동북 적벽으로 초청하는 글을 보냈다는 것을 이 기문을 통하여 알 수 있다.

2) 화순 경내 입경 과정과 적벽 자연을 대하는 모습

화순현(和順縣)의 치소(治所)가 있는 강학루(降鶴樓)에 올라가 시원한 바람을 맞이하는 모습, 적벽을 마주한 모습이 다음처럼 기록되어 있다. ‘선경(仙境)을 10여 리 정도 남겨 두고 산달이 비로소 얼굴을 내밀었는데, 홀연히 동쪽 편에서 맑은 기운이 자욱하게 끼인 가운데 마치 여름날에 뭇게구름이 피어나 기이한 산봉우리 모양새가 된 것 같은 것이 나타났다. 그러자 촌백성이 말하기를 “여기가 적벽이다.” 하였다.’ 이처럼 적벽을 대하는 첫 순간, 가을바람과 흰 이슬, 하늘과 땅의 모습 등 적벽 자연공간의 모습이 매우 사실적으로 아름답게 그려져 있다.

3) 적벽의 夜遊宴 등 인문 문화를 그리는 부분이다.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사실들을 알려주는데, 설월당이 사람들에게 채릉가(采菱歌)와 백빈가(白蘋歌)를 노래하게 하니, 학봉은 소동파(蘇東坡)의 적벽가(赤壁歌)가 아니면 귀만 시끄러울 뿐이라고 한다. 그리

고 말하기를, “옹어서 노래하는 것은 남자들이 하는 것이다. 어찌 아녀자들의 재잘대는 입을 빌려 맑은 노래를 더럽히겠는가.” 하였다. 그리고 전적벽부를 노래하고 통소를 불고, 또 거문고 아양곡(峨洋曲)으로 화답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놀이문화의 한 모습을 보여주는 재미있는 대목이다. 그리고 퇴계 선생에 대한 추억을 기억하고 있다.

4) 다시 적벽 자연 공간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있다.

놀이가 끝난 심야의 모습과 날이 밝은 아침의 적벽, 泛舟의 상황, 그리고 적벽의 자연공간을 그리고 있다. ‘술에 취한 눈으로 바라보니 보이는 건 오직 피어오르는 물안개와 흐릿한 달빛뿐, 사람들의 모습은 안개에 싸여 있었으며, 상하 사방을 분간할 수가 없었다.’ 고 하였다. 새벽에는 ‘붉은 언덕과 푸른 절벽은 물속에 뒤섞여 있고 금빛 모래와 하얀 자갈은 물속까지 하나하나 셀 수 있었다.’고 하였다. 이어서 적벽의 자연경관을 설명하고 있다. 서석산(瑞石山)과 옥산(玉山)의 두 줄기의 물이 합류하여 꺾어지고 휘어지는 제 2곡에 적벽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 아름다운 적벽의 모습은 ‘아무리 여산(廬山)의 구첩(九疊)이나 무이(武夷)의 구곡(九曲)일지라도 이보다는 못할 것이다.’는 말로 극도의 찬사를 하고 있다. 협선루(挾仙樓)와 포월대(抱月臺) 누대에 대한 언급도 되어 있다. 보통 자연공간을 그리는 것은 전반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는 적벽에 도착한 시간이 밤 시간이어서, 다음 날 날이 밝은 적벽 자연공간의 모습을 다시 한번 그리게 되었다고 보인다. 그리고 다른 누정 등 주변의 공간을 적는 것도 어느 한 공간의 유람에 대한 완결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5) 결말 부분은 소동파와 최산두의 문장을 거론하여 경계와 충고를 하고 있다.

소선의 문장이 아니었으면 오림(烏林)의 적벽이 알려지지 않았듯이, 최사인(崔舍人)이 아니었으면 알려지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설월당이 적벽을 꾸민 일에 대하여, '지금 또 주인이 꾸며서 장식한 것이 이와 같으니, 이곳 적벽이 다시 사람을 만났다고 이를 만하다.'고 말하고 있다. 설월당은 누각을 새로 짓고, 적벽의 경관을 아름답게 만든 일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최사인 이후 적벽을 유람한 자 수없이 많지만, 이름난 문장이 남아있지 않다는 말을 하고 있다. 그리하여 경계와 충고의 말을 남기고 있다.

요는 문장을 남긴다고 애쓸 일이 아니라, 쉽 없는 공부를 하여야 영원토록 전해지는 것을 이룰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훌륭한 학자가 된다면, 그 자취가 적벽에 남게 될 것이고, 아울러 적벽이 오래도록 전해질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다. 경계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결말 부분이다. 이 학봉의 <유적벽기>는 현재까지 알려진 화순 적벽 유람의 전말을 단독으로 기록한 조선전기의 대표적인 산문 문학이라고 할 수 있다. 적벽 유람 계기의 기록, 그리고 자연공간과 인문공간으로서의 적벽의 모습, 마지막에는 경계의 말까지, 두루 갖춘 적벽 遊記문학의 백미라고 할 만하다.

우리나라 어느 곳이건 적벽문학은 당연히 소동파의 <적벽부>를 연상하지 않을 수 없다. <적벽부>는 『고문진보』에 실려 널리 읽혔을 뿐만 아니라, 15세기에 벌써 <적벽부>가 서예 작품으로 인쇄되어 널리 퍼지고 있었다. 무등산권 적벽 문학 또한 소동파의 이러한 <적벽부>의 세계에서 완전히 별개로 존재하지는 않을 것이다. 소동파의 불교 취향이나 도교 취향의 사상이 어지러운 사회에서 현실도피를 꿈꾸었던 문인들에게 널리 환영 받았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무등산권 적벽 문학 가운데는 자연경관에서도 중국의 적벽보다 훨씬 낫다는 언급을 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수 없는 시문을 창작한 일이야말로, 조선 전기 무등산권의 문인들이 인문공간으로서의 적벽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알려준다.

4. 맺음말

지금까지 조선 전기 ‘무등산권 적벽’의 문학적 인식과 그 문학 작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전남 화순에 있는 ‘무등산권 적벽’은 이미 고려 말부터 찾는 이가 있었는데, 문학적 인식이 활발해진 시기는 조선 전기 16세기 무렵부터이다. 처음으로 ‘적벽’이라는 ‘자연 공간’을 ‘인문 공간’으로 만들어간 이는 신재 최산두 선생이다. 그는 기묘사화로 인하여 동북으로 유배를 와서, 해배 되고도 떠나지 않고 살다가 운명을 하였다. 그의 <제물염정> 시는 이견이 있기도 하고 불완전한 시이지만, 현재까지 남아있는 최초의 무등산권 적벽 관련 시로 여겨진다. 그 이후에 석천 임억령의 적벽 관련 시는 매우 의미있는 시이다. 이후로도 하서 김인후, 송천 양응정 등 호남 문인들의 한시가 이어졌고, 제봉 고경명은 10 여수 이상의 적벽 한시를 남기면서 주요한 적벽 문학 작가가 되었다. 이를 통하여 ‘무등산권 적벽’은 16세기에 이미 호남 문인들의 주요한 문학 공간이 되고 있었다는 점에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게다가 갈천 임훈, 설월당 김부륜, 학봉 김성일, 한강 정구 등 영남의 문인학자들이 전라도의 관인으로 부임하여 음에 따라서, 적벽 관련 많은 작품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이 또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여겨진다. 조선 시대 무등산권 적벽 관련 한시는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데, 적벽은 이미 조선전기부터 주요한 문학공간으로 자리 잡아 나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조선전기 무등산권 적벽 관련 산문으로는 1574년 제봉 고경명의 <遊瑞石錄>에 적벽 관련 유람이 실린 후에, 1586년에 학봉 김성일의 <遊赤壁記>가 이루어진다. 이들 산문들을 통하여 그 당시 많은 문인들이 적벽을 유람하였음을 알려주고 있다. 적벽 문학의 특성은 무엇보다 신선의 공간으로서의 인식이 매우 강하다. 현실을 떠나서 유배 중에 찾은 곳이라는 점에서도, 이상향적인 공간으로서의 염원이 표현되어 있기도 하다. 이는

소동파의 <적벽부>에 깃든 신선사상 등이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러한 점은 적벽문학에 나타난 일부 작가들의 은둔사상과도 연결되리라 여겨진다.

그러나 본문에서 다룬 적벽문학의 작가들은 대개 관인들이었다. 그들에 의하여 적벽문학이 본격적으로 개척되고 있었다는 것은 적벽이 깊숙한 은둔의 공간으로만 인식된 것은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유학자들에게 유람의 공간이었으며, 학봉의 <유적벽기> 등에서처럼 유학자의 근면함과 학문 연구가 강조되고 있음을 보여 주기도 한다. 이는 적벽 문학의 또 다른 특성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 전기 16세기는 무등산권 적벽문학이 시작하여 일어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임진왜란을 거치며 17세기 이후 조선후기에 적벽문학이 본격적으로 발전하여 가는 토대가 일찍부터 만들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崔山斗, 『新齋先生文集』

高敬命, <遊瑞石錄>, 『霽峯集』

林億齡, 『石川集』

金麟厚, 『河西全集』

金富倫, 『雪月堂集』

金誠一, 『鶴峰全集』

梁應鼎, 『松川集』

丁巖壽, 『滄浪集』

『국역 제봉전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4년 재간행.

김대현 외 역주, 『국역 무등산유산기』, 광주민속박물관, 2010년.

권수용, 「화순 勿染亭과 적벽문화」, 『역사학연구 44』, 호남사학회, 2011년.

김주순, 「소동파 <赤壁賦>의 조선 한시에 대한 영향」, 『중국문화연구 16』, 중국문화연구학회, 2010년.

김재현, 「한중 ‘赤壁’공간 이미지와 예술작품 비교 고찰」, 『비교문화연구 19』,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10년.

투고일 : 2014년 7월 15일, 심사 : 7월 17일~8월 8일, 게재확정 : 8월 8일

<Abstract>

Study on the literary works associated with Jeokbyeok(赤壁, The Red Cliff) in Mt. Mudeung(無等山) area in the early Joseon Dynasty

Kim, Dae-hyun

This article addresses 'Jeokbyeok literature in Mt. Mudeung area' as 'the literary space'. 'Jeokbyeok' refers to the representative literary space in East Asia. A number of 'Jeokbyeok' remain in China, Korea and Japan. In the past, special literary spaces such as Nujeong(樓亭) and Wonrim(園林) had been built in sites of scenic beauty.

It is reported that many Nujeong had been built in Dongbokhyeon(同福縣) which was in the same location of Jeokbyeok in Mt. Mudeung area. The literary works regarding natural space of Jeokbyeok and Nujeong such as Mulyeomjeong(勿染亭) are generally called 'Jeokbyeok literature'.

Especially, 'Jeokbyeok in Mt. Mudeung area' in Hwasun(和順) is the most representative 'literary space' in Korea. There are plenty of cultural sites such as Nujeong and literary works. This paper is one of the studies on Jeokbyeok in Hwasun in Jeollanam-do province as the Korean representative literary space. The content is mainly concerned with Jeokbyeok literature in Mt. Mudeung area in the early Joseon Dynasty.

In the early Joseon Dynasty, Sinjae Choi San-du(新齋 崔山斗)

recognized Jeokbyeok in natural space as a literary space. Classical Chinese poetry by Sinjae(新齋), Seokcheon Yim Eok-ryeong(石川 林億齡), and Jebong Go Gyeong-myeong(霽峯 高敬命) illustrates the beauty of Jeokbyeok. <Yuseoseokrok>(遊瑞石錄) by Jebong Go Gyeong-myeong(霽峯 高敬命) or <Yujeokbyeokgi>(遊赤壁記) by Hakbong Kim Seong-il(鶴峰 金誠一) is the typical prose in the early Joseon Dynasty. Every piece of the literary works represents the beauty of Jeokbyeok. However, many pieces show the Confucian(儒家的) academic attitude rather than the secluded spiritual world.

Key words : Jeokbyeok(赤壁), Jeokbyeok literature(赤壁 文學), Jeokbyeok in Mt. Mudeung area(無等山圈 赤壁), Mulyeomjeong(勿染亭), Choi San-du(崔山斗), Go Gyeong-myeong(高敬命)